

“전산쟁이도 원로이고 싶다”

강 신 환

((주)유니시스템코리아 상무이사)

벌써 십년전쯤의 이야기다.

“야! 이 친구! 오랜만이다. 별고 없지? 허..허..거..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그런데 말야, 아들녀석이 컴퓨터를 사달래는데 아는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좀 안되겠냐?”

시골 군청에서 과장으로 있는 그곳 유지(有志)인 친구한테서 모처럼 전화가 왔었다.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 중에는 전산쟁이(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겸양하여 이렇게 말한다)가 별로 없다.

그러다보니 친구들은 컴퓨터 이야기만 나오면 괜시리 아들한테도 주눅이 들어서 오래전에 전산(電算)입문(入門)한 나를 자연스럽게 떠올린거 같다. 그 친구 생각엔 아마도 내가 전산분야에선 모르는게 없을 정도로 고참이 되어 있을테니까 그저 전화 한 통화 쯤이면 컴퓨터 한대 정도야 값싸

고 튼튼한 놈으로 오래 쓸 수 있게 사줄수 있겠거니 생각한 거 같았다. 그 친구가 나를 여기듯이 나는 컴도사(개인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도 아니려니와, 더구나 박스장사(하아드웨어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겸양하여 이렇게 부른다) 사업가를 잘 알고 있지도 못한 솟발(마당발에 대응되는 좁은발의 속어)이니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모 처럼의 쟁이대접(專門家待遇)을 받은 기분에 쾌히 응락했다. 바쁜시간 쪼개어가며 청계천으로 용산으로 컴퓨터매장을 돌고돌아, 알고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제조업체별로 사양별로 가격대성능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당시 중학생이던 친구 아들이 쓰기엔 최적의 조건으로 사서, 전원만 쬐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의껏 포장하여 부쳐주었다. 2년후 우연히 만난 그 친구 “아들녀석이 말야. 컴퓨터가 고물이라고 새걸루 다시 사야한다는데 너 재작년에 사준거 그거 혹시 구모델로 재고처분하는거 아니었냐?” 컴퓨터의 라이프 싸이클이 어땡고, 소프트웨어에 맞게 하드웨어를 구성하려면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그냥 웃으며 “모르면 아들한테 좀 배워라” 농담으로 그냥 지났다. 그래도 그때는 쟁이 대접을 받던 시절이라서 억지소리를 들어도 유쾌할 수 있었다.

엇그제 일이다. “야! 이 친구! 오랜만이다. 건강은 좋지?”

허.. 허..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나도 맨날 그래. 근데 말야 통신을 할려고 새 롬데이타맨 프로 3.60 베타버전을 설치 했는데 모뎀 초기화는 되는데 다이얼이 안 떨어진단 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군청에 있는 그 친구다. 정보화사회의 공무원답게 그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 서울에 있는 아들내외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통신을 하는데, 윈도우 95를 운영체제로 깔면서 도스 버전인 이야기 6.0을 지우고, 윈도우용 통신프로그램인 테이터맨을 설치했다는 거였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도 정보처리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통신환경 하나도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야 그 친구에게 납득이 안될게 뻔한거고, 그렇다고 사용해 보지도 않은 통신프로그램의 버그까지 잡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한 가슴이야 어쩔 수 없다. 사실 정보통신분야에도 세분화된 자기전문분야의 기술 외에는 잘 모른다는게 결코 흠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아는 척 한다는게 우습지만 그것은 물어보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다. 잘 알고 있을거라는 생각에서, 또는 그 사람이라면 잘 할 수 있을거라는 판단으로 부탁했는데 성의없는 답변이나 무책임한 회피는 평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마저 바꾸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니 말이다.

“좀 있다가 알아봐서 내가 전화해 줄게.” 하며 우선은 공부

할 시간을 벌려고 했다.

“야! 모르면 좀 배워라. 나만큼도 모르면 되겠냐? 올라들놈한테 물어 보는게 빠르겠다.”

결코 유쾌하지 못한 농담이다.

어찌란 말인가. 하룻밤 자고나면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는 게 정보화사회의 특징이며, 젊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하루에도 수십수백개씩 공개되는데 어떻게 다 섭렵하란 말인가? 더더구나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 개인용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하며, 컨설턴트는 그저 과거지식과 경험만으로 권위만 내세우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정보통신분야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현재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여타 분야와 다른점임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기본원리나 기초지식이 바뀐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더 공부해야 정보처리전문가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이 분야 원로(元老)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런지.....